

* 다음 각 물음에 가장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지의 같은 번호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정확히 표기하시오.

한국사

1.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치 권력을 가진 군장이 출현하였다.
- ② 율령이 반포되어 통치 체제가 정비되었다.
- ③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 ④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저장하였다.

2. 다음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시기 순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왕 재위 3년에 순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3월에는 주와 군의 수령에게 명하여 농사를 권장케 하였다. 처음으로 소를 부려서 논밭을 갈았다.



(가)



왕 재위 14년에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다음 해에 백제 왕이 분하게 여겨 가야 군대를 이끌고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 ① 부여가 고구려에 복속하였다.
- ②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하였다.
- ③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 ④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3. 밑줄 친 '그'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최근에 발견된 그의 동상은 황제를 상징하는 통천관을 쓰고 있어 그 위용을 느낄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는 19년 동안 노심초사한 끝에 삼한을 통일하였고, 왕위에 26년간 있었으며, 후손들의 감정과 욕심으로 왕조의 질서가 문란해질 것을 근심하여 훈요를 남겼다고 한다.

- ①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등용하였다.
- ②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 ③ 지방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④ 12목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4.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자 대봉예가 당 조정에 문서를 올려, (가) 이/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자리 잡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국명의 선후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닌데, 조정 제도의 등급과 위엄을 지금 어찌 나라의 성하고 쇠한 것으로 인해 바꿀 수 있겠는가?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인안, 대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위화부를 두고 관리 인사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 ③ 일본에 보낸 문서에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 ④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켰고 요동 지역으로도 진출하였다.

5. 밑줄 친 '이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골품을 따져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친족이 아니면 비록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처음 정해진 한도를 넘지 못하였다. 이 신분의 경우 두품 가운데 가장 높았지만 17관등 중 제6관등인 아찬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성주사지 낭혜화상비에 '득난(得難)'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매우 얻기 어려운 신분이었다.

- ① 어려서부터 경당에 들어가 유학과 활쏘기를 배웠다.
- ② 신라 말 호족과 함께 사회 개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 ③ 상좌평에 임명되어 군사와 정사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 ④ 중추원에 소속되어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6.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위제가 도선의 비기를 공부한 후, 남경 천도를 청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도선기』에는 ‘고려 땅에 세 곳의 수도가 있으니, (가) 이/가 중경, 목멱양이 남경, 평양이 서경이다. 11월에서 2월까지는 중경에서, 3월에서 6월까지는 남경에서, 7월에서 10월까지는 서경에서 지내면 36개국이 와서 조공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① 견훤이 국도로 삼은 곳이다.
- ②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다.
- ③ 망이 · 망소이의 난이 일어난 곳이다.
- ④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여 나성이 축조된 곳이다.

7.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시대에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불교 관련 저술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 현종 때의 경판이 임진년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버렸고, 이에 왕이 신하들과 더불어 다시 발원하여 도감을 세우고 16년 만에 ㉡ 새 경판을 완성하였다.

- ① ㉠ –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었다.
- ② ㉠ – 교장도감에서 제작한 경판이다.
- ③ ㉡ –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④ ㉡ – 불교 경전 주석서를 수집하여 간행한 속장경이다.

8. (가), (나)에 들어갈 책의 이름으로 옳은 것은?

고려 후기에는 선진 농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중국 농서를民間에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원의 농서인 (가) 은/는 충정왕 대에 이암에 의해 도입되어 공민왕 대에 간행되었다. 하지만 우리 농법이 발전하고 우리 기후와 토양 조건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중국 농서는 점차 이용빈도가 줄어들었으며, 현실에 맞는 새로운 농서인 (나) 이/가 1429년에 세종의 명으로 편찬되었다.

- | | |
|--------|------|
| (가) | (나) |
| ① 농가집성 | 농사직설 |
| ② 농상집요 | 금양집록 |
| ③ 농상집요 | 농사직설 |
| ④ 농가집성 | 금양집록 |

9.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간이 아뢰기를, “인척의 도움을 받아 공신이 된 자가 30여 명, 유자광에게 뇌물을 바쳐서 공신이 된 자가 5~6명, 재상의 위세로 공신이 된 자가 1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을 모두 공신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를 논의하고자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안당 등을 불러들였다.

- ① 현량과의 실시로 사림이 등용되었다.
- ② 조의제문을 빌미로 사화가 발생하였다.
- ③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이 전개되었다.
- ④ 노론과 소론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다.

10. (가)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4군 6진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 ③ 외적의 침입에 맞서 강화도 천도가 단행되었다.
- ④ 군신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

11.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배가 손돌목으로 들이닥쳤다. 이곳은 병인년의 난리를 겪은 후부터 군사를 늘려 방비를 엄하게 하던 요지로서, 통행증이 없으면 함부로 통과할 수 없다. 그들은 이곳에 무단으로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더니 갑자기 강화도를 공격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리 측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부평 도호부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 배는 닻을 올리고 먼 바다 쪽으로 갔다고 한다.

- ① 어재연이 광성보에서 저항하다가 전사하였다.
- ② 외규장각에 보관된 왕실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 ③ 상인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하였다.
- ④ 제너럴 셔먼호가 침입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12.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의 명으로 예부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시문을 모아 책을 만들어 『동문선』이라 하고, 지리지를 편찬하여 『동국여지승람』이라 하였으며, 또 『삼국사절요』를 편찬하였다.

- ①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 ② 훈련도감을 창설하였다.
- ③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 ④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13. 밑줄 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인이 내는 포를 반으로 감면한 조치는 오로지 만 백성을 걱정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감면한 것을 계산하여 보면 모두 50여만 필에 이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1백여만 냥이다. 감면에 따라 각 아문과 영진(營鎮)의 비용을 줄였지만 아직도 40여만 냥이 부족하다. 이에 어·염·선세를 받아들여 모자라는 액수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 ①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호를 단위로 군포를 부과하였다.
- ③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④ 풍흉을 고려하여 전세를 차등 있게 징수하였다.

14. 다음 효유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아직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이 있다니 우려스럽다. 그대들은 얼마 전에 서로 맺은 약속대로 향리로 돌아가도록 하라. 생각해 보건대 며칠 전 상륙한 청국 병사들은 매우 사나운 군대이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혹시라도 이쪽으로 진군해 온다면 어찌 해를 입지 않겠는가! 본 관찰사는 폐정 개혁안을 조정에 상주하기로 하겠다. 그대들이 억울하게 여기는 사안들은 각 지방에 두기로 한 집강소를 통해 아뢰도록 하라.

- ○○관찰사 효유문 -

- ①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농민군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 ② 단발령에 반발해 일어난 의병에게 해체를 종용하고 있다.
- ③ 대한제국 군인들에게 군대 해산 조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다.
- ④ 전주 화약에 따라 자진 해산을 완료하라고 농민군에 요구하고 있다.

15. 밑줄 친 ‘비밀 결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피고 유동열은 윤치호, 안창호 등과 함께 국권 회복 후 공화 정치를 수립하기로 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그 단체가 뽑은 조선 13도의 대표가 되었다. 피고는 이 단체에 속한 주요 인물과 모의하여 총독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할 때 그를 암살하기로 계획했다. 피고는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유죄라고 생각한다.

- 조선 총독부 경무총감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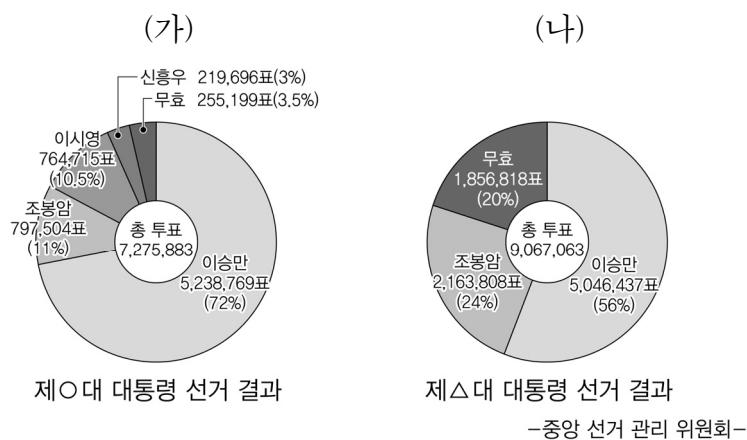
- ① 국한문 혼용체의 황성신문을 발행하였다.
- ② 13도 창의군을 조직해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
- ③ 평양과 대구 등의 지역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였다.
- ④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6. 다음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일기의 내용이다. 밑줄 친 ‘오늘’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주총대가 말하기를 내 소유 토지인데도 예전의 결수 연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번에 작성하는 신고서에 모두 적어 신고하라고 했다. 그 말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며칠 전에 제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발급되더니, 오늘 드디어 지세가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예전에는 결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기더니 이제부터는 지가를 결정하고, 그 지가의 일정 비율을 지세로 부과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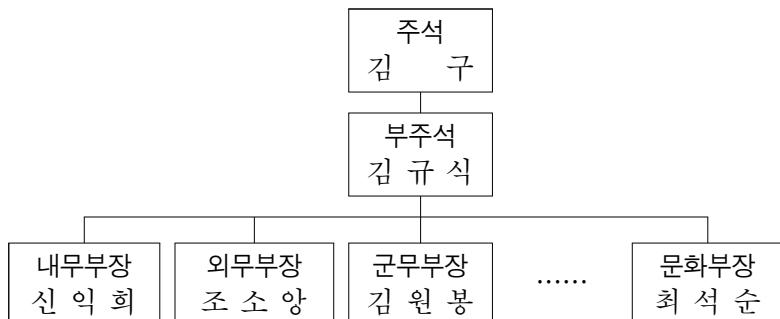
- ①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일본인 경찰
- ②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교 학생
- ③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여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는 조선어 학회 회원

17. (가), (나) 선거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부산에서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 ② 국가 재건 최고 회의가 구성되었다.
- ③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앤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8. 다음 정부 조직이 갖추어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국내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가 운영되었다.
- ② 한국 광복군이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 ③ 국민 대표 회의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 ④ 한인 애국단 단원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19. 다음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간대별 상황

오전 8시 30분 :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국장 행렬이 통과 한 뒤 중앙고보생 30~40명이 만세를 부르며 격문 약 1,000여 장과 태극기 30여 장을 살포함.
오전 9시 30분 : 만세 시위를 주도하던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간부 박두종이 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됨.
오후 1시 00분 : 훈련원 서쪽 일대에서 천세봉의 선창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남.

- ① 중국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신간회가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 ③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들이 준비하였다.
- ④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20. 밑줄 친 ‘정부’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친애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태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하여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 대통령 취임사 -

- ① 중국·소련과 국교를 맺었다.
- ②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③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였다.